

MC : 인천 의정 중계답 시간입니다.

한 차례 보류가 됐던, 인천시와 인천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방침입니다. 지난 12월 발의됐던 이 조례안, 해당 조례안 내용에 대한 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학의 의견차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난항 끝에 보류가 됐었는데, 재상정을 결정하게 된 배경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수영 시의원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부평제5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류수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수영입니다.

MC :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대 상호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발의 취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의원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994년 3월에 인천대가 인천시립대로 전환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면모로 발전해 왔는데, 작년에 290만 우리 인천시민의 열화와 같은 힘을 입어서 국립대학으로 새 출발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학문연구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태가 되는 인천시와 상생발전 전략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관학협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MC : 예. 처음 발의하셨던 게 12월 인거죠?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어떤 방식에 관학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 인천시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우리가 그 동안 20년간 키워서 왔던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학이죠. 인천광역시 내에도 그 보다는 모자라지만, 인천대를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학사업 내용과 사업범위 이런 것을 협약서에 담아 있지만은, 그에 관한 것이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 협력하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MC : 인천대학교가 이제 국립대학이 됐으니, 인천시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잘했음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드신건데, 당초에 시의 반대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의원 : 인천대가 작년부터 국립대학으로 전환됐지만은 아직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조례 발의 취지는 당위성, 모두 함께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MOU성격이 협력안을 조례까지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양쪽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C : MOU면 충분한데 그걸 또 조례까지 만드냐? 그게 시의 그 동안에 의견 이었군요.

의원 : 그렇죠.

MC : 관학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인천시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은데, 재상정 하시게 된 걸로 보면은 의견이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의원 :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기준에 있습니

다.

MC : 이걸 강제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봤던 건데 그럼 조례안이 갖게 될 구성력도 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합의가 좀 됐나요?

의원 : 조례가 발의해서 입법부에 우리가 사전 검토를 했어요. 조례안이 학교 설립하고 규칙, 등록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고유사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만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MC : 정리를 해 드리면 인천대학교는 이제 국립대가 됐기 때문에 시 외부 기관인데, 이것을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게 또 회신을 받으셨단 말씀이군요.

의원 : 네.

MC :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 법인화 이후에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의원 : 그렇죠. 우리가 MOU성격 협력안대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면 그 약속을 안 지켜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내용은 마중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MC : 마중물...

의원 : 네.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 올리려면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MC : 국립대학이지만, 인천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국비지원을 좀 빨리 많이 해달라 이런 마중물 성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재상정 된 조례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나요?

의원 : 다음 달에 열리는 213회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전으로 상위임에 예비심사를 걸쳐서 본회의에 가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MC : 그렇군요. 다음 달에 열리게 될 거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통과 가능성은요?

의원 :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 알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대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의원 :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립대였던 인천대학을, 잘 키운 딸을 국립대로 시집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국립대학으로 새 출발해서 인천에 가면 국립 인천대가 있다 서울에는 서울대가 있다. 인천이 8개도 시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을 진작 살면서 인천에 자식낳고 인천을 사랑을 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사랑 인천을 부르짖고 싶고 우리 모두가 290만 시민들이 금년도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다 인천을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 : 예. 감사합니다.

MC : 인천시와 인천대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재상정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인천시의회 류수영 시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